

전남 양식면적 증가했으나 고령화도 전국 최고

'통계로 본 어업 구조 변화' 발표...전남 어가 수 1만8700가구 김 수출 증가에 전남 양식 면적 12만1500ha...19년 새 40.8%↑ 전남 70세 이상 어가 비율 31.8%...어가인구 감소폭도 가장 커

전남 양식업 면적은 지난해 기준 12만1500ha로, 지난 19년 동안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70세 이상 어가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매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 변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양식업 면적은 12만1500ha로, 전체(16만1800ha)의 75.1%를 차지했다.
전남 양식업 면적은 3년 전인 2016년(11만3700ha)보다 7800ha(6.9%) 증가했고, 19년 전인 2001년(8만6300ha)과 비교해서는 3만5200ha

(40.8%) 늘었다.
2001년 대비 면적증가율은 32.4%로, 전남 증가율은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근 19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전남(1.9%)은 전국 평균(1.6%)을 웃돌았다.
양식 규모가 작은 전북(-15.6%), 인천(-25.0%), 부산(-33.3%) 등은 공유수면 개발로 면적이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 측은 "양식업 면적이 증가한 데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면적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했고 미역·다시마는 전북 먹이용 사용에 따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50년 전인 1970년에 비해 어가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도 꼽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가 수는 5만1000가구로, 1970년(14만9000가구)에 비해 65.9%(-9만8000가구)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감소율은 2.2%였다.
지난해 전남 어가 수는 1만8700가구로, 50년 전(6만4900가구)에 비해 무려 71.2%(-4만6200가구)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도 2.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50년 동안 어가 감소 수는 전남에 이어 강원(-1만7200가구), 제주(-1만7000가구), 경남(-9000가구), 경기(-8600가구), 경북(-5700가구), 충남(-2400가구), 전북(-13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이 기간 동안 어가 수 뿐만 아니라 어가인구 감소 폭도 가장 컸다.
지난해 전남 어가인구는 4만2100명으로, 1970년 41만3500명에 비해 무려 89.8%(-37만1400

명) 급감했다.
전남에 이어서는 강원(-10만1900명), 경남(-9만1900명) 등 어가인구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어가인구는 11만3900명으로 1970년(91만2600명) 대비 87.5%(-79만8700명) 감소했다.
전남은 어가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남 70세 이상 어가는 5700가구로, 전국 70세 이상 어가 1만7900가구의 31.8%를 차지했다.
전남에 이어서는 충남(3800가구), 경남(2600가구), 제주(1800가구), 전북(1200가구), 부산·경북(각 700가구), 인천(600가구), 강원(400가구), 울산·경기(각 200가구) 순으로 70세 이상 어가가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남 70세 이상 어가는 2007년 2500가구에서 지난해 5700가구로 128% 늘었다"며 "전남 70세 이상 어가비율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마케팅 프로모션 전국 상호금융 실적 1위 달성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전국 상호금융 실적 1위를 차지했다.
전남본부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가 실시한 '상호금융 마케팅 통합 프로모션'에서 전남농협이 그룹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호금융 마케팅 통합 프로모션은 농·축협 신용사업 기반 강화와 미래 성장사업을 중점 추진해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저원가성예금, 교차판매, 스마트뱅크, 롱뱅크, 비대면계좌, 핵심비이저이익, 고정이여신관리, 농가소득 증대상품 추진 등의 항목을 지역본부별로 평가한다.
전남농협은 각 항목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을 하는 등 전남 146개 농·축협과 한마음으로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석기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증대와 고객 편의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왜가리의 먹이사냥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회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을 통해 지난 10월8일까지 접수한 응모작 623작 가운데 수상작 16점을 발표했다. 경북 영양군 반변천에서 촬영한 대상 수상작 '왜가리의 먹이사냥' (김철수).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KRC전남지역개발센터 첫 포럼

농촌협약제도 대응방안 모색 등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KRC 전남지역개발센터가 첫 포럼을 열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전남 농촌지역 개발포럼'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전남본부는 현재 농촌협약을 기반으로 나주시와 화순군의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외부전문가, 컨설팅사 간 상호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 송정농협, 농산물 꾸러미 취약계층 전달



광주 송정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최근 '지역사랑나눔 농산물꾸러미' 100개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가래떡·애호박 등 8개 품목

광주 송정농협이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100개를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송정농협은 최근 농가주부모임과 '지역사랑나눔 농산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강령구 농협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형덕 송정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꾸러미는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애호박, 토마토, 달걀, 방역 마스크 등 8개 물품으로 구성됐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이들 꾸러미를 직접 포장했다.
송정농협 관계자는 "봉사 참여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관원, 경영직불팀 신설...공익직불제 운영 지원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지원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가 있다. 전남에는 19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G.O.Auction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32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지 : 22784㎡(6892평) • 건축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매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